여수시, 민선9기 첫 추경 1조 8,370억 편성…

시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력 제고·섬박람회 운영 지원 중점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8,3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9기 시정 비전인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첫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업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023억 원 보다 1,346억 원(7.9%) 증가한 1조 8,370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109억 원(7.2%) 증가한 1조 6,452억 원, 특별회계는 237억 원(14.1%) 증가한 1,918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원활한 운영과 개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교통·안전·환경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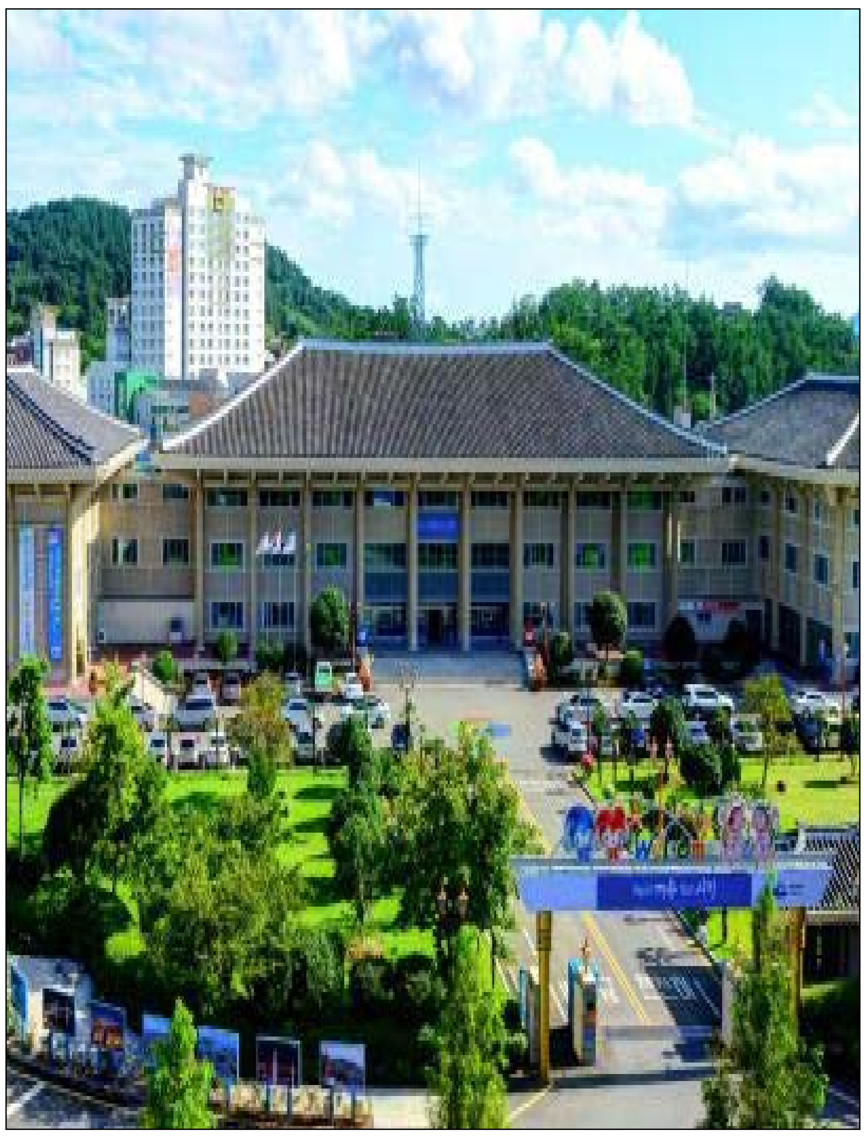
주요 사업으로는 ▲섬박람회 주행사장 기상악화 대비 실내무대장 설치 4억 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지원 8억 원 ▲야간운행 운항결손액 지원 2억 5천만 원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2억 원 ▲극성수기 셔틀버스 운행차량 임차 3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행사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섬박람회 문화행사 프로그램 보강 5억 6천만 원 ▲해양관광(요트·유람선) 활성화 지원 6억 원 ▲전남 섬 반값여행 지원 3억 4천만 원 ▲전남 농촌체험 페스티벌 개최 2억 원을 반영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과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을 반영했으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동백노인복지관 건립 예산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했다"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청 전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한옥글방 디카詩 창작클래스」 운영

순천시 한옥글방은 7월 15일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토요일 「한옥글방 디카詩 창작 클래스」를 운영한다.

디카시(Digital Camera 詩)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한 장의 사진과 짧은 시로 순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문학 장르로,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창작수업'과 토요일 '시민 체험교실'로 나누어 진행된다.

'창작수업'은 회차별 다른 주제와 청소년, 가족, 시니어, 일반인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전문 강사진과 함께 시 작성 및 사진기법에 대한 강의부터 촬영, 시 쓰기, 작품 완성까지 자신만의 디카시를 창작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링크 및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배우go 나누go' 참가자 모집

광양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자원봉사나눔터(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2026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배우go 나누go'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비롯해 ▲원목트레이 만들기 ▲제빵 체험 ▲글라스아트 만들기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하루 2회씩 총 6회 운영된다.

지도코치 10명이 재능 기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은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 초·중·고등학생(초등학교 3학년 이상)과 24세 이하 청소년, 학부모이며, 총 1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신청은 7월 14일부터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이수 후 봉사활동 실적 4시간이 인정되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자원봉사센터(☎061-797-2780)로 문의하면 된다.

하태우 주민복지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친구가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통해 20년 우정 이어가

곡성군은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보타구 홈스테이 방문단을 맞아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20주년 되는 해로 양국 학생들에게 더욱 뜻깊은 만남과 교류의 기회가 됐다.

이번 방문단은 무령중학교 왕방방 단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과 학생 1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개별 가정 홈스테이와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표단은 공식 교류 일정에 함께하며 양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힘을 보탰다.

교류 기간에 양국 학생들은 태안사와 섬진강기차마을, 곡성섬진강천문대, 어린이도서관 등 곡성의 역사·문화·체험시설을 둘러보며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느꼈다. 또한 곡성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과 교육 환경을 시찰하며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를 체험하며 곡성의 자연을 만끽하고, 전남 조리과학고에서 곡성 식자재를 활용한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보며 한국의 식문화를 접했다.

아울러 K-팝 댄스와 K-뷰티 체험에도 참여하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겼다.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등 국경을 넘어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양 지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정비 휴가철 단속반 발대식

구례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점용, 평상 및 가설건축물 설치, 자릿세 수취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지속적인 계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중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해 보다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설과 하천팀을 중심으로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인 1조로 편성 발대식을 가졌으며, 불법행위 계도와 주변 환경정비를 병행해 구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점 관리구역 5곳을 지정해 하천 내 취사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금지 구역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불법 상행위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를 실시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자연자원"이라며, "이번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심선섭 기자